

# 사회보장제도 법정 절차 악용 의원발의 조례안 주저 앉히기

### 최영규 도의원 발의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

###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에 부정적 협의요청 공문 발송

전북도가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정액의 수당지원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련 연구용역도 의뢰해서 결과물을 검토했고, 전문가 및 청소년 초청 세미나도 진행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성안했고, 도 담당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전북도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들 토론 및 실무에는 소극적이면서, 뒤로는 법정 절차를 악용한 행태는 사실상 의원발의의 조례안을 주저 앉히기 아니냐는 최영규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절차로 국가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착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절차는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전북도는 거꾸로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청소년수당 지원사업을 도입하지 않기 위해 부정적 의견을 달아서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규 의원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논리로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신규로 하고 싶으니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구한다는 게 사회복지기본법이 정하는 협의절차 내용인데, 전북도는 조악한 협의공문을 작성해서 오히려 부정적 의견을 유도했다"면서 "자치법규 입법 과정은 적극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지, 조례안을 주저 앉히려는 작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최영규 의원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논리로 특정 사회복지사업을 신규로 하고 싶으니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구한다는 게 사회복지기본법이 정하는 협의절차 내용인데, 전북도는 조악한 협의공문을 작성해서 오히려 부정적 의견을 유도했다"면서 "자치법규 입법 과정은 적극적인 토론과 논쟁으로 해결할 일이지, 조례안을 주저 앉히려는 작전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 '차보다 사람이 우선'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통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

무 조항도 마련됐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의 통과로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이 가능해졌다"며 "열악한 제반여건을 보완함으로써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병도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근거 마련으로 보행권이 강화돼 집이나 상가 등 국민생활 주변에 있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

### 연간 557시간 봉사활동 달성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올 한 해 동안 임직원이 14차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총 557시간의 봉사시간을 달성했다.

공사는 올해 자원봉사 중점 테마를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선정하고, 전 임직원이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를 멈추지 않고 ▲육상시설 개선, ▲건물내 청소, ▲스마트폰 운영지원, ▲텃밭재배 등 수혜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방식의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올해 공사는 자원봉사, 친환경, 소외계층 기부 분야로 나눠 사회공헌



새만금개발공사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시설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고령층, 장애아동, 보호이동 등 새만금 지역 내 소외계층의 복지 및 교육지원 등 지역사생을 위한 기부도 전개한 바 있다. 강병재 사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계

기로 그간 새만금 사업을 성원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의 뜻을 일부라도 전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MZ세대 중심'... 11일 민주 도당 선대위 출범

### 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제외

### 전원이 2030세대들로 구성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전면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선헌선 선거 대책위원회'(이하 전북도당 대선헌선 선대위)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MZ세대 중심의 선거 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2030세대와 함께,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 대선헌선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성주 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MZ세대로 구성됐으며,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각 지역을 맡아 선거 운동을 책임진다.

전북도당 대선헌선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승지(36) 대표는 가업을 잇기 위해 부안으로 돌아와 우리밀과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한 '슬리퍼빵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소금과 짓갈로 통했던 곰소염전을 뺏고 커피향이 감도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공동선대위원장 중 최연소인 최지호(18세) 학생은 부안고 학생회장 출신으로, 청소년 인권과 참여 보장 운동을 전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청소년 권익 증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다짐을 전했다

김창하(38) 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주거권 운동에 주력하면서 원도심 활력을 목표로 한 '봉근술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했으며, 윤혜아(23)는 장애인 차별 극복에 힘써온 청년 활동가이다.

이 외에 전북도당 대선헌선 선대위 공

동선대위원장으로, 소리담터를 운영하는 인플루언서 박길영(37), 공동육아와 풀밭 활동,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동훈(36),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조희선(23), 청년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며, 설계하는 청년기획사 대표 최서연(25), 한국 음악을 전공하고, 모던 판소리 등 새로운 문화 예술 활동을 만들고 있는 송병금(34), 그린뉴딜 1번지 전북을 준비하는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화학 편집이사 김남훈(38)씨가 각 분야를 대표해 참여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대선헌선 선대위 취지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단순히 청년 세대를 참여시키는 선거 운동이 아닌, 대한민국 대선헌선의 과제와 비전을 미래 세대가 직접 그리고 만들어가는 선대위가 될 것"이라고 선대위 구성과 인선 사유를 밝혔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대선헌선 선대위 취지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단순히 청년 세대를 참여시키는 선거 운동이 아닌, 대한민국 대선헌선의 과제와 비전을 미래 세대가 직접 그리고 만들어가는 선대위가 될 것"이라고 선대위 구성과 인선 사유를 밝혔다.

### 신영대 의원, 군산 도시바람길 숲 공모 선정 기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시가 산림청 '철길숲(도시바람길숲, 이하 도시바람길숲)'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시바람길 숲' 사업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구안으로는 사정삼거리부터 공설시장 철로변의 길이 2.6km, 면적 51,582㎡의 폐선부지가 활

용되며, 2022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군산 도심 내 폐철도는 각종 쓰레기 투기, 불법경작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번 사업 선정으로, 폐철도 구간에 산책로, 잔디광장, 편의시설, 시민참여 공간 등이 마련되면, 시민들에게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등 열악한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양경숙 의원, 민주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효과적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양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시중은행을 철저히 조사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이익 피해를 해결하고, 기업 갑질에 대한 공익제보 처리기한 관련 규정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정부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관세청 공무원과 사업주 주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 및 미흡한 드론 운용 실태를 지적하는 등 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택 의원, 한농연 2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과 한농연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선정하는 2021년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서류심사는 물론, 현장 및 본 심사 등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택 의원은 9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농연은 이번 국정감사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 이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률 제고 및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정요구, 농촌 인력지원센터 실효성 점검 및 농촌 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요구, 모든 농가에 대한 공익직불제 지원 필요성 문제제기,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제기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방안 마련 주문을 주요 공적으로 이번 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